

2024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4.3.26.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6/10	5	2	13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이진희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5	-	2	11	-	11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1	-	-	11

다. 전월(2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선거 보도시 시민의견 수렴 방식> 지역 언론관련 교수 또는 정치 행정 관련 학회, 연구소와 연계해서 질문을 받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선거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시민 의견 접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견 주신 것처럼 전문가나 학회쪽과 연계해서 질문을 발굴하겠음 <24. 3월 조치>	'24.2월
보도	<공정한 의대 증원 및 총선 보도> 의대 증원과 총선 주제는 양극화 되어 있어서 보도가 어렵겠지만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보도를 해주길 바람	선거 보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을 견지해서 보도에 임하겠음 <24. 3월 조치>	'24.2월
보도	<지역병원 상황 안내 보도> 지역 병원은 아직 환자를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안내가 필요해 보임	가장 시급한 부분은 시민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으로 의료기관 정보와 관련해서도 보도를 하겠음 <24. 3월 조치>	'24.2월
보도	<류현진 훈련 보도> 스포츠 뉴스에서 다룬 내용인데 지역 뉴스와 스포츠 뉴스에서 똑같은 내용을 길게 다루서 피로감이 들었음	첫 뉴스에서는 류현진 복귀를 다룬 것이고 추후 올해 전력이나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 등 입체적으로 분석 보도할 예정임 <24. 3월 조치>	'24.2월
보도	<지역민 관련 보도 비중 확대> 총선 보도로 인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다른 보도가 적은데 그 비중을 더 늘려주길 바람	솔루션 저널리즘 보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다양한 아이템을 다루겠음 <24. 3월 조치>	'24.2월
교양	<오늘M-온라인 전시회 안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청춘 컬렉션 사진 전시회를 잘 봤는데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자주 다루주길 바람.	전시회 관련해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다양한 전시회나 공연 소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음 <24. 3월 조치>	'24.2월
교양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계룡 7남매는 방송 길이가 짧다 보니 시청자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꼭지로 다루주면 좋겠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짧은 느낌이 있어서 다른 측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겠음 <24. 3월 조치>	'24.2월
교양	<지역잡지와 연계한 방송 기획> 월간 옥이네, 토마토와 같은 지역 잡지와 연계해서 지역 사람들의 얘기를 방송으로 실어주면 더 풍성한 기획이 될 것 같음	월간 옥이네는 하이퍼로컬리즘에 충실한 발행물인데 연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음 <24. 3월 조치>	'24.2월
기타 (시청자게시판)	<편향적 패널 출연 방지 대책> 편향적 특정 패널의 말실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임	패널의 원고를 사전에 받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은 존재함. 라디오 개편 예정인데 차체에 출연자와 진행자 개편을 고민하겠음 <24. 3월 조치>	'24.2월
기타 (시청자게시판)	<라디오 송출장비 교체 관련> 음질이 전 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라디오 송출장비 어떤 것을 교체한 것인지?	오디오 밸런스 및 음질이 좋지 않아 오디오 분배장치를 새장비로 교체했음 <24. 2월 조치>	'24.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4년 3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22.05.01~24.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22.05.01~24.04.30
위원	박이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22.05.01~24.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회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의회사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세종갈 공천취소 시민인터뷰 관련> 시민단체 인터뷰 대상자의 투표권을 축소시켰다는 내용은 정치적이라고 생각됨. 인터뷰 대상자의 적절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추후 시민사회 상실감에 대한 보도도 다뤄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여론조사 보도 관련> 언론사의 여론조사 응답률을 보면 보통 10%~20% 사이인데 시청자들이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도록 보도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총선 관련 정책 검증> 재외국민투표 자료에 일부 정당 공약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총선 관련한 정책 검증에 대해서 지역방송에서 많이 고민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선거 보도 관련 > 선거 보도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들을 해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인생내컷 제작 방향> '인생내컷'은 첫 방송이후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다양하고 멋지게 사는 개인과 그 일에 대해 더 많이 다뤄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60주년 특집 레일관련 프로그램> 대전이 도시로서 정체성을 갖는데 철도가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제작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이종수 도예가 전시관 관련> 대전시에서 이종수 도예가 전시관 설립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송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공연 정보에 대한 소개> 단순한 공연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공연이 끝난 뒤 인터뷰를 통한 캠페인성 방송도 다뤄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메디컬포커스 정보 제공> 호스피스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때 보호자와 대화하는 장면으로 보여주면서 정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음	회의록 첨부	○		
기타	<소년소녀합창단 관련> 제주도 소년소녀합창단이 5월에 대전에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대전MBC 합창단과 연계 공연을 원한다고 함.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청자게시판)	<홈페이지 제1FM 온에어 잠음> 홈페이지 제1FM 실시간 스트리밍 음량을 올리면 노이즈가 심해서 청취에 영향을 줌.	음질 문제로 업데이트 완료	○		

2024년 3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손병우 위원장,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이진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지금부터 3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10분 중에 6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3월 대전 MBC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총 6건인데요. 홈페이지 관련 의견 2건, 프로그램 정보 문의 1건, 채널 수신 환경 문의 1건 그리고 마감 뉴스 편성 관련 1건, 캠페인 내용 문의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

그럼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신임 진종재 사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반갑습니다. 대전MBC 대표이사로 취임한 진동재입니다. 만나 뵈게 돼서 반갑고요. 전임 김환균 사장님께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특별히 언급하신 게 시청자위원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는 그 어느 위원회보다 알찬 내용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다 더 고품격의 프로그램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제작하는 데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은표 간사

이번에는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입니다.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을 새롭게 맞아 저희 시청자위원회도 새로운 분위기에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청자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모니터링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동 위원님부터 말씀해주시죠.

김정동 위원

<인생 내컷>이 작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첫 방송부터 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개인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개인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같이 부각시켜 줘서 더 큰 의미가 있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월 14일 프로그램도 갤러리와 아이티를 접목시킨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갤러리는 오프라인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아이티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사례로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취향과 상관없이 다양한 것들을 여유 있게 보여줘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지역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대전MBC에서도 공모 신청을 하셔서 된 것 같더라고요. 제목에 레일이 붙었는데 지난번 말씀하셨던 60주년 철도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대전과 철도는 떼려야 뗄 수 없고, 최근에 대전학도 주목받고 있고, 관련 보고서 정리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대전이 도시로서 정체성을 갖는데 버스가 아니라 철도가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제목만 봐서는 이걸 더 뛰어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대전의 정체성을 넘어서 다른 것까지 연결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새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장래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장래숙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선거 관련 뉴스를 거의 반 이상을 보도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 중에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세종 공천 취소에 대한 후폭풍 관련 보도인데요. 보도 내용은 잘 들었는데 그 중에 인터뷰가 두 건이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인터뷰인데요. 시민단체에서 인터뷰를 하는 건 모든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로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 중에 정부를 비판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축소시켰다는 내용은 다소 정치적이지 않나... 이 건 공천 취소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면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인터뷰를 할 때는 시민이 공정하게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전MBC에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제가 타방송인 KBS, TJB, JTBC를 보니까 대부분 응답률이 10%대에서 20%사이더라고요. 이게 일괄적으로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을 수가 있어요. 보통 500명에서 2,000명까지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500명이면 대전MBC에서 한 걸 보면 서구갑은 13.5%예요. 그러면 60명 정도 응답한 건데요. 일반 시민들이 들을 때 정말 이게 여론조사에 타당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일보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4%대도 있어요. 2천명 조사에서 4%라는 인원이 여론조사의 신빙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착각할 수도 있고 아닌 것도 그렇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 났다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라는 응답률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조금 어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대표성과 관련한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진 위원

선거철이다 보니 선거 보도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가 2주 정도 남았고 재외국민 투표는 내일부터거든요. 아는 분들과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내용을 물어보니 각 정당에서 실질적으로 보낸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집이 거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비례대표 명단만 나간 상황이더라고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정당 공약이 아예 없이 그냥 비례만 나가서 재외 국민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역 이슈는 아니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 선거를 계속 지향하는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또 하나의 방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외국민투표뿐만 아니라 총선 관련한 정책 검증에 대한 고민들을 지역 방송국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어요.

장래숙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세종시 이영선 후보 관련된 건에 대해 짧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떠나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님이었나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영선 후보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운영위원 경력이 길게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세종참여자치연대에서 운영위원과 고문을 오래하셨던 경력으로 민주당 활동도 하셨고 이번 논란도 있는데 그 해당 조직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에 대한 아쉬운 지점을 그

조직의 사무처장에게 듣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종의 다른 시민단체들이나 다른 의견들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인터뷰 대상으로서 적합했는가라는 고민이 들고요. 이력만 확인해 봤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영선 후보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전세 사기 관련 집회를 할 때 봤었는데 피해자들이 법률상담에 갈증이 많다 보니까 집회에 가면 다른 정치인들이 발언하는 건 별로 눈길을 주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그 분이 변호사라고 하면서 발언을 할 때는 피해자들이 엄청 관심을 갖고 집회가 끝나면 개인 상담을 받으시려고 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의견도 눈여겨 볼 지점이고 또 다른 의견들도 눈여겨볼 지점이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그동안 전세 사기 관련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실 그런 상실감이란든지 복잡한 마음들에 대해서 지역 언론에서 좀 더 다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도 내용들이 아쉬운 지점이 있어서 지역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인복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인복 위원

저는 <인생 내컷> 프로그램에서 도검 명인 소개를 보고 대전에 이렇게 멋있는 분이 계시나 하고 생각했는데요. 지역에서도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정말 다양하고 멋지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잘 찾아주셔서 정말 고마웠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방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쇼츠에 민감한데 프로그램 앞부분 구성을 빠르게 편집한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이종수 도예관 관련해서도 대전시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이종수 도예가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방송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서 지역 예술계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서는 공연 쪽도 같이 관심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단순히 공연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공연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 공연이 끝나고 가족 단위나 연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족끼리 공연장을 가면 좋겠구나 또는 연인끼리 데이트 코스로 공연장을 가도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나게 공연 이후의 캠페인이 될 수 있게 함께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에 출장을 갔다가 대전MBC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제주도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5월쯤에 대전에 와서 공연을 할 거고 그 때 대전MBC와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소년소녀합창단은 평화를 주제로 활동한

다고 해서 대전MBC와 같이 연계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서로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정보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손병우 위원장

다음으로 이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진희 위원

대전MBC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공영방송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는 이번 달에 짧게 3개가 나갔는데 매우 짧지만 다채로운 내용들을 찾아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또 <인생 내컷>에서는 한 가지에 진짜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이에 사람이 연결되는 도구로서 예술 또 문화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인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훌륭한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자기반성의 시간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뉴스 관련해서는 선거 여론조사 일들은 매우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그 역할들도 충실하게 해 내시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공중파에서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저는 돌아가면서 골고루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메디컬포커스 호스피스 1,2편을 봤는데요. 두 번을 봤습니다. 재미있어서 두 번을 본 건 아니고요. 한 번을 봤는데 정보가 딱 들어오는 게 없어서 다시 한 번 봤더니 다뤄야 할 정보를 다 담았다는 걸 두 번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 보고 탁 꽂히는 게 없었을까 한참 고민을 해보니까 정보를 다 담기는 하셨는데 호스피스이기 때문에 그걸 마치 대면해서 직접 보호자와 대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완곡한 어투와 그 다음에 주저하는 표현으로 직설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치료와 회복은 어렵고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아름답게 삶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게 아니라 자꾸 위로해 주는 어법을 방송에서도 그대로 담아내다 보니까 대면했을 때의 우리 말투와 방송으로 객관화시켜서 정보성으로 전달할 때의 화법은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위로하려고 들고 주저하고 그랬기 때문에 탁 꽂히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직설적으로 하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다시 한 번 받거나 아픈 기억을 다시 한 번 해야 하는 시청자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지점이 사실은 참 어렵죠. 직설적

으로 정보를 전달하되 표현 방식은 세련되게 해서 의도치 않은 상처를 입지 않게 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기는 한데 좋은 아이템이 선명하게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프로그램 모니터 의견은 말씀을 하셨고요. 대전MBC측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편성국장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인생 내컷>인데 이번 주까지 방송되면 총 27회이고요.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야의 전문가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그 삶에 녹아 있는 디테일함을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겉핥기식의 삶이 아니라 긴 세월동안 켜켜이 쌓여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내면, 디테일함 그 것을 강조하면서 제작하고 있고요. 충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강원권과 호남권에 프로그램을 교환해서 송출되고 있고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동 위원님 말씀하신 <문명 : 더 레일로드>라고 창사 60주년 대기획으로 2부작으로 준비했구요. 일단 지역 방송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돼서 9천만 원 정도 제작비를 확보를 했구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이 지역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협찬을 더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전역이 생긴 게 1904년으로 120년이 됐고 고스란히 대전의 역사인데 대전역이 왜 생겼는지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19세기 후반에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러시아의 남하를 영국이 막는 과정이 있거든요. 크림반도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북아시아까지 오면서 그 와중에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도 발생했고 그 영국과 러시아와의 대립 대리전을 치른 게 사실 일본입니다.

그 결과 발생한 것이 러일전쟁이고 러일전쟁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원래 일본이 한반도 철도 부설권을 얻었을 때는 대전이 없었습니다. X자로 만들어서 부산에서 조령, 충주를 넘어서 서울로 가고 나머지는 호남선 쪽으로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일본이 마지막에 자본이 달리다 보니까 대전이 갑자기 들어가게 된 거죠. 전쟁 와중에 굉장히 우연하게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게 대전이라는 120년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전 세계 1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 자연 환경 그리고 바닷가나 강가에 위치하지 않고 혹은 분지 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순전히 문명에 의해서 시작된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발견해 보고자 이런 기회를 마련했고 2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와 현재 얘기 또 올해가 고속철도가 2004년에 시작돼서 20년 됐거든요. 고속철도가 우리 삶과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는 고속철도가 어떻게 나갈지 대전이

교통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주안점으로 해서 창사 60주년 대기획으로 잘 만들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몇 월에 방송 예정이죠?

이상욱 편성국장
9월 26일이 창사기념일이어서 기본적으로 그 때 방송을 맞추려고 하는데 제작 일정이 해외 제작도 있어서 최대한 9월에 맞춰보겠지만 송출 날짜는 뒤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예가님은 대전시에서 지역 예술인 2호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작년에 좌절돼 시민들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물론 이응노미술관이 있지만 (대전)지역 자체에서 1호 예술인에 대한 전시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방송 차원에서 캠페인 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두고두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인복 위원님과 이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인생 내컷> 주인공 발굴이 지금까지도 좋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더 노력해서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연이라는 게 이쪽 관점에 대해서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지난 번에 문화와 예술의 차이도 말씀하셨지만 제작진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문화쪽에 혹은 예술쪽에 관련된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관점의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하고 같이 공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님 말씀하신 건강프로그램은 저희가 5년 정도 유지를 해오고 있고 제작진이 3~4년 정도에 한 번씩 바뀌긴 하지만 건강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주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질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고민 끝에 질환보다는 다른 정보나 다른 사례들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다양성 측면에서 노력하는 와중에 손병우 위원장님이 보신 코너가 등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가 답이나 아니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답이나 하는 부분들도 제작진하고 공유를 하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도 질환 중심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병원 혹은 의료에 대해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아주 간단한 정보들이지만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용 보도국장
저희가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올해 선거만큼은 참여하고 진영 간에 갈수록 네거티브한 선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보도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유권자 중심 보도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슈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래숙 위원님 말씀하신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많은 여론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각 진영마다 여론조사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과 과거 총선,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을 같이 하고 있는데 본사 여론조사 기관과 같은 업체입니다.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 왔고 특히 응답률 관련해서 14% 얘기하셨는데 시군 지역은 24%나 23%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높은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리아리서치가 출구조사까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 저희가 설문설계 같은 것들도 여러 차례 검증과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도가 중요하고 경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 2차를 진행하고 4월 초에 3차 여론조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요 관심 지역, 관심 선거구 그리고 양 진영에서 보는 전략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차까지 마지막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여론조사에 나온 후보지지도 뿐만 아니라 민의라든지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인용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여론조사 응답률이나 개요는 당연히 보도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론조사 보도의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이 되니까요. 또 관련 뉴스를 유튜브로 만들 때에도 여론 조사 개요는 반드시 올리고 있습니다. 30초짜리 혹은 1분짜리의 후보지지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만들더라도 여론조사 개요는 반드시 반영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론조사가 100% 믿을 만한 것인가. 어느 여론조사나 말씀하신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어떤 경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참고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이번 선거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들, 재외국민 공약집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중앙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비례대표 후보 순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전국 통일 기호가 아닌 다른 비례 대표의 순위는 지역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이번 투표에서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 기획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선 후보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세종갑 후보에 대한 논란들은 여러 차례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했다는 점과 특히 갭 투자라는 지점인데 특히 그 후보가 전세사기 집회에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운영위원회였던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의 어떤 당혹감이랄든지 이런 부분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왜 검증되지 못했는지 부실 검증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떤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후보들 검증을 후보 본인의 기술에 맡길 부분이 아니라 실제 가려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종지역 시민사회에 던져진 충격들을 후속으로 주의 깊게 주목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를 대표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의 어떤 귀책이 있다는 부분은 달리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이랄든지 특히 후보가 등록 이후에 공천이 취소됨으로써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되는 것들을 고려했는데 이후에 이번 후보 공천 취소가 갖고 있는 재산등록상의 문제와 허위 기재의 한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 깊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권자 중심 보도를 견지해 나가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로 선거 이슈들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첨예하게 쟁점화 되다 보니까 데일리 이슈들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펼쳐질 수 있는 부분들, 폭로라든지 흔히 흑색선전이라든지 과열될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정책 선거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보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지난달에 소년소녀합창단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오케스트라까지 같이 모집을 했는데요. 기대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서 까다로운 잣대를 마련해서 실력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합격시켰습니다. 작년만 해도 첫 해라서 모집이 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운영하기가 쉽지 않니까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합창단 같은 경우는 연습 장소가 좁아서 고민할 정도로 많은 인원을 확보를 했고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실력을 많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준 있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5월은 청소년, 어린이의 달이고 가정의 달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유사 단체와 콜라보가 가능한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창단을 했으니까 공익적인 행사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혹시 추가 질문이나 답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진종재 사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오늘도 역시 시청자위원님들께서 모니터 결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작 책임자분들의 설명을 통해서 저희들도 또한 이해도가 조금씩 높아진 그런 위원회 회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에도 이렇게 계속 알찬 회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전임 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알차고 의미 있는 위원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조금씩 걱정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특히 선거철 뉴스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보도를 하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요청하면서 보도나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격려도 잊지 않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외부 공연 정보라든지 합창단 관련된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뵙는 위원회지만 향후에도 오늘과 같은 좋은 내용으로 저희들을 질책해 주시고 저희도 좋은 방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에게 소중한 의견 주셔서 다시 한 번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표 간사

이상으로 3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